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 본질에 충실하게”

이재정교육감, 고양 지역 초등학교장과 소통

“등수를 매기는 것은 교육을 망치는 일”

학생의 능력·상황·관심 등 차이 인정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월 1일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 ‘현장교육협의회 시즌2’에 참석해 고양 지역 학교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교육협의회에는 초등학교 학교장 82명이 참석해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학교민주주의의 지수, 교권보호, 민주적 학생자치문화 △위기상담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운영, 안전한 체험활동을 위한 학생보호인력 운영 △학교혁신, 혁신공감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교육 현안을 주제로 이재정 교육감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학교장들은 토론 주제 이외

에도 학교장의 학교경영 자율권 보장, 미세먼지 발생하는 분필 칠판 교체 및 실내체육을 위한 체육관 건립,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외국어 교육 활성화, 교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초등 저학년 교실 보조교사 배치, 예산 목적경비의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돌봄, 운동부, 방과후학교, 청소년 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한다”면서 “이러한 과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도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 학교를 학교답게 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외국어 교육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이 교육감은 “다양한 외국어 교육은 아이들의 지적 발달을 촉진하며,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지만,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듣기 교육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등수를 매기는 것은 교육을 망치는 일”이라면서 “공정하다는 것은 모든 학생을 하나의 출발선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 상황, 관심 등 차이를 인정하고,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문명의 전환기를 맞아 교실의 개념도 바뀌고 학습의 규모도 달라져야 하며, 교육의 내용도 목표도 방법도 이제는 혁신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미래 교육을 위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청소년 영상제작 프로젝트 ‘꿈즈’ 14팀 모집

18일까지 ‘미디어경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6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 간 청소년 영상제작 프로젝트 ‘제4기 더(THE) 꿈즈’를 모집한다.

청소년 영상제작 프로젝트 ‘더 꿈즈’는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영상을 통해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세대 간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4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도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홈페이지 ‘미디어경청’(www.goenair.com/)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한 팀당 최대 5명으로 PD, 작가, 연출, 촬영, 편집 등 역할을 분담해 구성한 후, 기획안과 팀 소개영상을 공제한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기획안과 영상 등을 심사해 최종 14개 팀을 선정해 21일 미디어경청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팀은 7월 15일 ‘일일 제작 워크숍’에 참가하여 각 팀별 전담 멘토와 함께 영상 제작 이론 및 실습 등 전문교육을 받을 계획이며, 향후 팀별 기획안에 따라 2~3개월 간 제작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시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

“대입 진로·진학 설명회에 참가하세요”

15일 경기북부지역, 21일 경기남부지역서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5월 15·21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위한 2018학년도 대입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6월 15일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정부)에서, 21일에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수원)에서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는 6월 9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지역별 교육지원청의 대안교육담당자나 진로교육담당자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고, 개인별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학과 조사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제출양식이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이재정교육감

1권역 교육장과 소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6월 2일 오전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열린 ‘2017 1권역 교육장 회의’에 참석해 교육장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교

육감을 비롯해 광명, 군포의왕,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안양과천, 평택,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등 1권역 교육장 9명이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배움 교실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의 변화를 모색하고, 경기교육의 파트너 십을 제

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안 과제로 △플랫폼으로서의 교육지원청 역할 △2015개정 교육과정 안착 과제 △학생 선택 중심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협의했으며, 지역별 다양한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교실이 경기교육의 목표”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실의 변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입체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와 함께 수능, 대학입시, 고교 무학년 학점제 3가지를 한꺼번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시 논의, 오는 2021년부터 새로운 제도로 미래 교육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삼성전자, SRT 수서철도고속, LG전자, 차세대 반도체, 현대자동차, LG화학,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증권